

#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동향 및 개별국가연구\*

차 경 미  
(부산외국어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후반 정부기관 또는 민간연구소에서 현지의 실정이나 실무적인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고조되었고, 1960년대 중반 제3세계국가 일부로서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중남미지역연구학과가 설립되었고, 1974년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전공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 대학에 중남미연구소가 탄생하면서 중남미지역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1986년 라틴아메리카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는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지역 연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말 접어들어 국내 인문사회학계에서 해외지역연구가 지배적인 화두로 떠올랐고 이에 편승하여 1989년 서울대학교에 스페인, 중남미연구소가 개소하였고, 1997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가 출발하였다. 뒤를 이어 1999년 선문대학교 중남미연구소와 단국대학교 아시아, 아메리카연구소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62-A00003).

국내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는 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국내 주요 라틴아메리카연구 학술지를 대상으로 2000-2010년 3월 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글을 성격별로 그리고 연구대상 국가별로 분류하여 양적인 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발전을 살펴 보고자한다. 게재논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고찰해 볼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학술지는 전국규모의 학술지로서 서울대학교 중남미.스페인연구소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의 『중남미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이베로아메리카』와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발간하는 『라틴아메리카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국대학교 아시아.아메리카 연구소의 『아시아.아메리카 논총』과 선문대학교 중남미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전국규모의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스페인어문학회에서 발간하는 전국규모의 학술지 『스페인어문학』에 게재된 라틴아메리카지역 관련 연구논문들이 국내 주요학술지 게재논문의 정량적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연구의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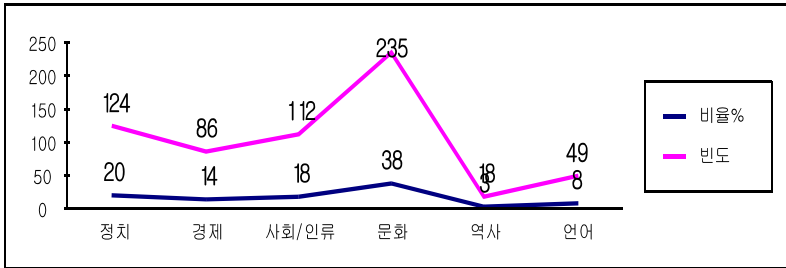
## II.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동향

〈표 1〉 국내 주요학술지 게재논문 현황(2000-2010년 3월)

분야	비율%	빈도
정치	20	124
경제	14	86
사회/인류	18	112
문화	38	235
역사	3	18
언어	8	49
합계	100	624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 연구관련 국내 주요 학술지 게재논문현황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내주요 학술지 게재논문현황(2000-2010년 3월)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대 학술지에 게재된 624개 논문을 학문적 성격별로 나누어 게재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문화 38%, 정치 20%, 사회/인류 18% 그리고 경제 14% 순으로 나타났다. 게재논문의 학문적 성격분류에 있어서 문학과 연극, 영화 그리고 그림 및 예술과 관련된 논문들은 문화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연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라틴아메리카관련 연구자들 중 어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다른 학문 전공자들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서 비롯된다. 2001년 라틴아메리카학회 회원의 학문분야별 분포를 보면 어문학 전공자의 수가 전체 50.8%에 달하며 문화연구는 대부분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문화연구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실증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실증적 연구와 병행하여 문화연구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서 사회과학분야는 정치에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지역 연구는 초기 어문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정치학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서 사회과학분야는 주로 정치학이 문제의 중심이었다. 어문계열 전공자가 중심을 이루는 학문적 배경 속에서 쉽게 넓힐

수 있는 분야가 정치학 정도로 매우 제한적 이었다”(김우택, 전 라틴아메리카 학회 회장과의 인터뷰, 2010년 3월). 한편, 1990년대 들어 미국과 중남미 현지에서 훈련받은 지역연구자들이 대거 충원(이성형, 2009:37)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정치학 전공자로서 다른 학문 전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지역연구가 활성화 된 배경은 그 지역이나 국가가 차지하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비중이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그 시대 국가가 제시하는 테마가 있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비중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정도에 따라 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폭이 좌우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발적으로 접근하여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지역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는 경제위기나 지역통합과 관련된 논문이 주류를 이루지만 지역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회, 역사, 문화 분야는 매우 빈약한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사회/인류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 역사연구는 3%로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 학술논문들이 종전에 정치 분야 편중에서 탈피하여 점차 인문학이나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대상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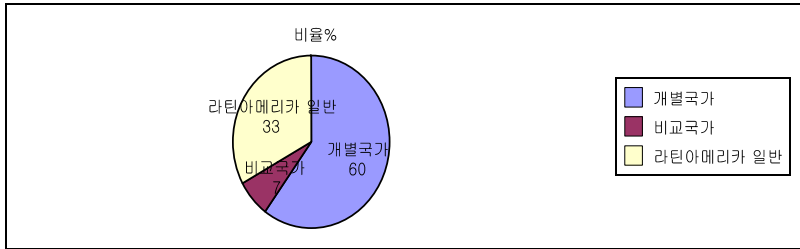
분석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대상국가 분석을 위해 개별국가연구, 비교국가연구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전반을 다룬 논문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연구 분야를 나눠 학문별 연구현황을 살펴 보았다. 전체 논문 중에서 개별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60%에 해당하는 378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라틴아메리카 전반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3%에 해당하여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개별국가와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국가연구는 7%에 그쳐 개별국가 연구에 지나치게 편중현상을 보였다.

〈표 2〉 연구대상 국가의 접근분류

분류	비율%	빈도
개별국가	60	378
비교국가	7	38
라틴아메리카 일반	33	208
합계	100	624

〈그림 2〉 연구대상국가의 접근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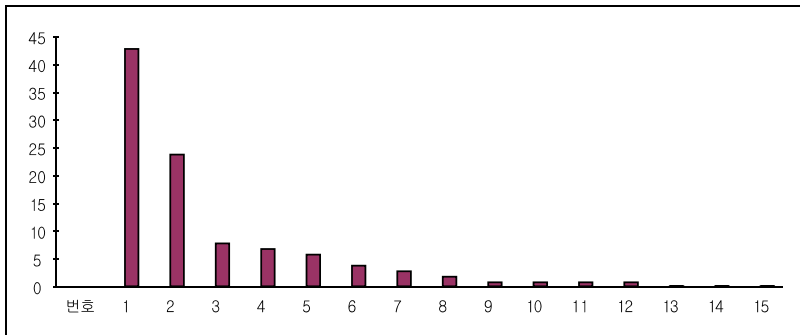
### 1. 개별국가접근 연구

〈표 3〉 개별국가연구현황

번호	국가	비율%	분야						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언어	
1	멕시코	43	17	25	40	59	12	8	161
2	브라질	24	14	14	28	21	3	12	92
3	아르헨티나	8	5	2	9	12	2	1	31
4	칠레	7	13	2	7	3	1	0	26
5	쿠바	6	6	1	3	8	3	0	21

6	콜롬비아	4	2	0	2	9	2	0	15
7	페루	3	0	0	6	4	0	0	10
8	베네수엘라	2	7	0	0	0	0	0	7
9	볼리비아	1	0	1	2	0	0	1	4
10	과테말라	1	0	0	0	2	1	0	3
11	푸에르토리코	1	1	0	0	2	0	0	3
12	도미니카	1	2	0	0	0	0	0	2
13	엘 살바도르	0.3	0	0	1	0	0	0	1
14	자메이카	0.3	0	0	0	0	0	1	1
15	파라과이	0.3	0	0	0	1	0	0	1
	합계	100	67	45	98	121	24	23	378

〈그림 3〉 개별국가 연구현황



90년대 이전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한 1차 자료부족으로 인해 주로 2차 문헌에 의존한 경향을 나타냈다. 90년대 접어들어 해외 지역연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폭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기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주목받게 되었다. 연구자들의 증가로 인해 전공분야도 다양해졌으며 이전의 조사방법과는 다르게 현지조사와 외국 문헌의 접근을 통한 연구의 질이 향상되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양적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초래

했다. 2000년 들어 개별국가 연구는 한층 심화되어 이전에 소외되었던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해졌다.

개별국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멕시코 43% 그리고 브라질 24%로 두 국가에 대한 연구비율이 전체 67%를 차지했다.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는 특정국가가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비중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에 대한 연구는 문화와 사회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제, 정치 그리고 역사가 그 뒤를 이어간다.

90년대 멕시코 연구는 신자유주의와 NAFTA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멕시코의 경제개혁은 NAFTA 체결이후 경제상승과 고용확대를 통해 거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는 정치적 혼란과 폐소화의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동반했다. 90년대 말 한국의 금융위기는 멕시코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멕시코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한 모색을 중심으로 멕시코 연구가 주류를 형성했다. 2000년대 들어 멕시코 관련 연구는 이전 보다 한층 심화되어 그 이전에 미약했던 사회분야에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원주민과 여성은 라틴아메리카 인권문제 논의의 핵심이었다.

브라질에 대한 연구는 사회와 문화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멕시코의 연구경향과는 달리 연구 비중에 있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언어와 같은 다른 분과학문과의 괴리감은 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연구 역시 문화와 사회가 주류를 형성한다. 칠레관련 연구는 기존의 군사쿠데타, 군부통치 민주화 등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2000년 들어 한국과 FTA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등장했다. 급진좌파성향의 차베스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2000년 들어 삼인방체제붕괴 이후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권이 교체된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소수를 차지하지만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카리브 해 지역 국가 연구가 역사와 언어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 연구는 주로 NAFTA, FTA 그리고 MERCOSUR로 대변되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지역 내에서도 경제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개별국가연구는 개별국가의 다양성이 무시된 채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집합체(김경일, 1998:78)라고 간주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연구대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카리브 해 지역 국가, 중미의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남미의 에콰도르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같은 국가에 관한 연구는 보고서 형식으로 학계가 아닌 외교통상부의 중남미지역 협력과, 재정경제부, 국정홍보처,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국립해양조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 은행 등 국가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나타낸다.

최근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연구사태가 확장되었지만 지역 내의 몇 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거나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별국가연구에 있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소외되어 있는 소국에 관한 연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국가 연구에 있어서도 편중되어있는 연구 분야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 연구에 있어서 특정주제와 특정국가에 대한 연구의 편중성을 해소해야한다.

비교연구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연구가 현지조사를 기초로 내부자 시각을 통하여 한지역의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지역연구가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규명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박병규, 2009:30). 그러므로 특정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개별국가연구는 각국의 특수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나마도 특정 국가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다양한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개별국가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 국가 전반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비중 있는 특정국가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2000-2010년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개별국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나마도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지역적 분화를 통한 전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한 지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제별 세분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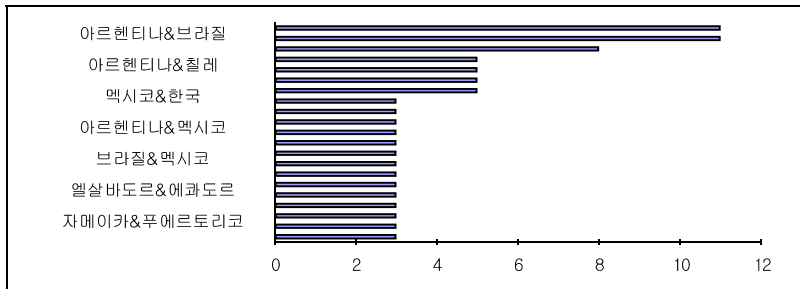
## 2. 비교국가접근연구

〈표 4〉 비교대상국가 및 연구 분야

국가	비율%	분야						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언어	
미국&중남미	13	2	1	1	1	0	0	5
아르헨티나&브라질	11	1	1	2	0	0	0	4
미국&멕시코	11	2	2	0	0	0	0	4
중남미&한국	8	0	3	0	0	0	0	3
아르헨티나&칠레	5	1	0	1	0	0	0	2
브라질&한국	5	0	0	1	1	0	1	2
칠레&한국	5	2	0	0	0	0	0	2
멕시코&한국	5	0	1	1	0	0	0	2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	3	0	0	0	1	0	0	1
아르헨티나&한국	3	0	0	1	0	0	0	1
아르헨티나&멕시코	3	0	1	0	0	0	0	1
아시아&중남미&지중해	3	0	0	0	0	1	0	1
볼리비아&칠레&페루	3	1	0	0	0	0	0	1
브라질&멕시코	3	0	1	0	0	0	0	1
코스타리카&니카라과	3	0	0	1	0	0	0	1
쿠바&푸에르토리코	3	0	0	1	0	0	0	1

엘살바도르&에콰도르	3	0	1	0	0	0	0	1
아이티&자메이카&수리남	3	0	0	0	0	0	1	1
아이티&마르티니크	3	0	0	1	0	0	0	1
자메이카&푸에르토리코	3	0	0	0	0	0	1	1
멕시코&과테말라	3	0	0	0	1	0	0	1
중남미&동아시아	3	0	1	0	0	0	0	1
합계	100	9	12	10	4	1	3	38

〈그림 4〉 비교국가대상현황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있어서 다른 지역 국가 혹은 역내국가와의 비교 연구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비교연구 대상 국을 살펴보면 미국, 한국, 동아시아 그리고 역내국가로 압축된다. 미국과 중남미지역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는 주로 정치 분야가 중심을 이룬다. 미국과 역내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분야는 정치와 경제가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과 중남미지역 전반에 대한 비교 연구는 경제 분야가 주류를 형성하지만, 한국과 역내국가와의 비교연구는 경제, 정치,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칠레에 대한 연구는 정치 분야, 한국과 멕시코에 대한 연구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한국과 브라질 연구는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는 경제 분야가 유일하다.

역내 국가 간 비교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는 사회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정치

와 경제가 동등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대한 비교연구는 정치와 사회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문화 분야가 주류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연구는 경제 분야로 요약되고,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페루에 대한 비교연구는 정치 분야에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의 비교연구는 경제 분야가 주류를 형성한다.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언어와 문화 분야가 중심을 이룬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지난 10년 동안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라틴아메리카지역 연구논문의 경우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는 소수이며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가 다른 여타 지역에 대한 종합적, 학제적, 비교연구 보다는 개별국가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연구가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준거 틀 속에서 지역들 상호간을 비교했을 경우 각 지역의 사회역사적인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Mintz, 1971:19).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는 비교 방법론적 연구개발에는 별다른 노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개별 국가들 간의 관련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의 각 국가별은 물론 단일국가 내의 각 지역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라틴아메리카 측면에서 보면, 국가 또는 한 국가 내 지역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국가 간 또는 단일국가 내의 지역 간의 삶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남미지역 개별국가 연구에서도 비교연구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3.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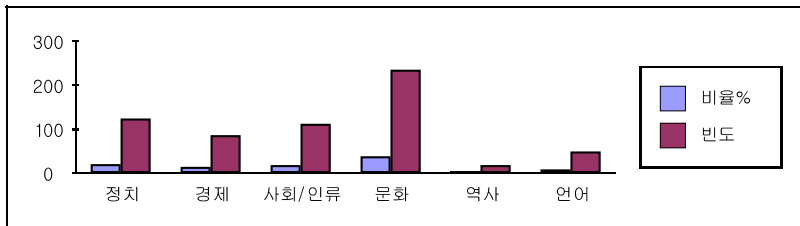
〈표 5〉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관한 분야별 연구경향

분야	비율	빈도
정치	10%	20
경제	17%	36
사회	24%	49

문화	33%	69
역사	3%	7
언어	13%	27
합계	100%	208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전체 연구에 33%를 차지하여 개별국가연구 다음으로 지역연구의 중심을 형성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문화인류학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공통의 역사와 경제발전 방식 그리고 사회구조를 통해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개별국가 중심의 연구는 물론이고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림 5〉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관한 연구현황



라틴아메리카 전반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33%, 사회24%, 경제17%, 정치10%, 언어 13% 그리고 역사 3%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는 문화와 사회연구가 지역 국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체 논문의 과반수 이상인 5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경제 17%, 언어 13% 그리고 정치 10%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역사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전의 연구경향과는 달리 2000년 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문화와 사회분야가 주류를 형성했다.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각각의 이슈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인 분과학문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특정지역과 특정주제

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IV. 개별국가연구의 의의 및 과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은 33개국이 공존하며 언어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등 많은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 다양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종구성에서도 여러 인종이 혼재해있으며,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혹은 국가별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인종 그리고 문화가 한 공간 내에 함께 뒤엉켜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상호 공존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지역이다.

탈냉전 시대의 지역연구는 국제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변화로 종교, 민족분쟁, 지역, 핵문제, 환경문제, 인구문제, 정보화, 마약문제 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국가 간 또는 초 국가적 지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만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방화와 세계화의 두 가지 모순적 논리가 병존하는 냉전 종식이후현상은 내재적으로 각각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은 보편성의 원리와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학은 해당 지역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는 연구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지역은 각각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 구축이나 검증에 위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역학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국가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반적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적 가치기준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김영철, 2008:36)해 왔지만, 서구의 보편성은 서구라는 범위 내에서의 보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구의 특수한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성은 특수성을 인정해 나아가는 과정이다(박상진, 2010,359-362). 그러므로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개별독립국가의 집합체로 구성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향하는 지역학의 측면에서 볼

때 개별국가연구의 의미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 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을 분석하기 위한 보편적 모델구성에 집중할 경우 각국의 고유한 특수성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국가 연구는 의미가 있으며, 1차 자료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연구의 특성상 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가 부재 할 경우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중심의 연구가 수행될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도 개별국가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국가연구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몰두해 오신 원로학자의 학문적 경험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 (...)중남미 지역은 33개국 독립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많은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군요.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 심화문제와 연구대상지역이 하나로 묶어도 이상하고 풀어놓으면 더 이상한 다양한 국가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더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시대에 국가가 제시하는 테마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전공과 부합되는 시대의 과제가 있어요.(...) 자기 길을 찾아야 해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아오면 A교수가 매스컴에서 오늘은 모스크바 사태에 관해, 내일은 다른 나라의 정치상황 등 전 세계 정치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북한 문제 같은 경우 한정된 일부 교수들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 학자로서 저널리스트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한쪽에서는 멕시코에 관해 또 다른 쪽에서는 아르헨티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남미지역이 여러 국가로 형성되어 있고, 언어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연구자는 최소한 특정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강석영, 한국의 국어대학교 명예교수와의 인터뷰, 2010년12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수한 정체성을 무차별적으로 라틴아메리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는다는 것은 인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다양한 독립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지역은 각각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또는 여러 개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묶는 연구를 통해 각각의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진 교수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특수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독립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계 혹은 경계를 정하는 일은 발견보다는 재구성에 더 가까운 일이다. 해체와 상대주의의 논리는 보편성의 무한한 거부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닌 개체들의 탄생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세계단위론’에서 리오타르는 작은 담론이 세계단위론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작은 담론이 파편화되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 네트워크의 개념을 동원하여(.....) 작은 지역들의 고유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큰 지역은 하나의 단위로 묶는 가능성을 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단위를 올바르게 상징하고 연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관습적 관계가 이루어 내는 하나의 총체적 현상으로부터는 정체성을 확보한 개별지역들의 연합으로 볼 필요가 있다”(박상진, 2002:137).

## V. 결론

2000-2010년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관련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해보았다. 4대 학술지에 게재된 624개 논문을 학문적 분야별로 나누어 게재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2000년대 접어들어 이전의 빈약한 경향을 보여 온 사회/인류학 그리고 문화 분야의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연구대상 국가의 편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국가연구, 비교국가연구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전반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개별국가 연구는 지역 내에서도 경제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인 멕시코, 브라질,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지역 내의 몇 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거나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나마도 특정 국가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주제도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는 주제별 세분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정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 개별국가연구는 각국의 특수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다양한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개별국가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 국가 전반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비중 있는 특정국가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2000-2010년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개별국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지역적 분화를 통한 전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국가가 차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비중 정도에 따라 연구의 깊이와 폭이 결정되었다. 개별국가 연구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볼 수 있다. 개별국가연구에 있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기존의 연구대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소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향하는 학문으로서 지역학은 해당 지역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는 연구이므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상호 공존하며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독립체 별로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연구는 부각된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모델구성에 치중할 경우 각국의 특수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별국가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독립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저마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큰 지역단위를 이룬 공간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다양



한 언어와 역사, 문화의 기본 지식을 만족시켜야 하는 각각의 지역 단위들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각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집단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2000-2010.
- 서울대학교 중남미.스페인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000-2010.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2000-2010.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2000-2010.
- 김우택, 2010년 3월 인터뷰.
- 강석영, 2011년 12월 인터뷰.
- 김경일,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8.
- 김영철, 「브라질 연구동향과 과제」, 『포르투갈-브라질연구』, 한국 포르투갈-브라질학회, 2008.
- 곽재성,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동향과 발전과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2.
- 이성형,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어떻게 할 것인가』, 인문한국 해외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2009.
- 박병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와 범위설정의 다양성문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어떻게 할 것인가』, 인문한국 해외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09.
- 박상진, 「지중해 지역연구의 조건과 가능성」,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2.
- \_\_\_\_\_, 「지중해학의 문명적 요구」, 『외부세계와 동남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0.
- Mintz Sidney, "The Caribbean as a Socio-Cultural Area", *People and Cultures of the Carriean*, Michael Horowitz ed. New York:Natural History Press, 1971.

❖ ABSTRACT

## Latin American Regional Study Trend and Individual Nation Study

Kyung Mi Cha

With the beginning of systemized research on Latin American region as a part of the third world in the mid-60s, Latin American regional studies in Korea acquired a steppingstone for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entral & South American Regional Study, the creation of Central & South America Research Center, and Latin American Society established in the mid-80s. Latin American regional studies achiev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with the national globalization policy in the 90s, and research centers related to Latin America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ankook University, and Sunmoon University have contributed to the activation of regional studies. In spite of such achievements, Latin American regional studies, which have developed with 40 years of history, still possess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This study achieves qualitative analysis on theses published from 2000 to March 2001 in main Latin America regional study academic journals in Korea to analyze Latin American regional study trend of the recent 10 years in order to search measures for activating Latin American regional studies. Academic journals used in analysis include 『Ibero America Research』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Center of Central & South America, Spain, 『Central & South America Research』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Center of Central & South America, 『Ibero America Research』 of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entral & South America Center, and 『Latin America Research』 published by Latin American Society.

According to analysis on publication ratio of published theses according to field, it was presented that culture and politics fields occupied the highest ratio.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e elementary studies of regional research which have previously presented a weak research tendency, have achieved noticeable development during the past 10 years. According to analysis on researched

nations, Latin America regional study was weighted in particular nations, and nations of economic size and political influence within region were selected as main subjects of research. Furthermore, several nations were not researched at all.

For the last 10 years, the depth and width of the Latin America regional study had been decided by the degree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ccupied by the nation. It can be said that studies based on overall understanding on regional countries of Latin America have been relatively weak in individual nation study. Furthermore, studies that separate issues to achieve analysis based on the awareness theory of individual branches can be regarded dominant among studies based on entire Latin America. These studies still possess limitations in failing to deviate from the outline of particular region and topic.

---

#### Key Words

국내주요학술지, 정략적 분석, 개별국가연구, 특정지역 편중

Main Academic Journals of Korea, Qualitative Analysis, Individual Nation Study, Preference of Particular Region

논문접수일: 2011. 01. 20.

심사완료일: 2011. 02. 25.

게재확정일: 2011. 03. 10.